

#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④	2	④	3	②	4	⑤	5	①
6	④	7	③	8	④	9	⑤	10	②
11	③	12	④	13	①	14	⑤	15	②
16	②	17	⑤	18	①	19	⑤	20	③
21	④	22	①	23	④	24	③	25	②
26	①	27	④	28	②	29	③	30	①
31	①	32	③	33	⑤	34	②		

#### 해설

\*\* 독서 이론 \*\*

□ 출전 : 천경록 외, <독서 교육론>

#### 1. [출제의도] 추론적 읽기의 특성 파악

글의 응집성이나 글에 제시된 정보의 양은 추론적 읽기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글에 제시된 정보의 양이 추론적 읽기 과정에서 글의 응집성에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① 1문단에서 필자가 글의 내용을 생략하여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글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 글에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독자의 읽기 능력에 비해 글에 제시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 독자의 추론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독자가 글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자신의 배경지식을 통해 추론적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출제의도] 독서의 특성 추론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추론하기 위해 자신이 읽었던 신문 기사의 내용을 떠올리는 것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추론적 읽기를 하는 것에 해당할 뿐, 자신의 확장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추론적 읽기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① 2문단에서 글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추론적 읽기를 할 때에는 꼼꼼한 읽기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다. ② 중세가 신 중심의 사회였다는 문장을 통해 글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한 것은 글의 명시적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적 읽기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③ 중세 유럽인의 평균 수명을 현대인의 평균 수명에 비추어 본 것은 글에 제시된 정보를 자신의 배경지식과 비교해 가며 추론적 읽기를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⑤ 세계사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배경지식으로 삼아,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해 추론적 읽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3. [출제의도] 추론적 읽기의 방법 이해

<보기>는 잘못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을 파악할 경우, 정확한 추론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추론 과정에서 글에 제시된 정보와 자신의 배경지식을 비교한다는 ㉠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점검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① ㉠과 <보기>의 관점 모두 글이 쓰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론적 읽기를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과 <보기>의 관점 모두 독자의 배경지

식 수준에 따라 추론의 목적을 달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과 <보기>의 관점 모두 독자가 글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활용할 때 필자의 의도를 고려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과 <보기>의 관점 모두 독자가 글에 드러난 단서를 찾아 문장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주제 통합 \*\*

□ 출전 : (가) 강신주, <철학 대 철학>  
(나) 루이 알튀세르, <철학과 맑스주의>

#### 4. [출제의도]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가)는 자연재해나 인간의 삶이 하늘의 뜻이 아니라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 왕충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클리나멘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루크테리우스의 사상과 이탈리아의 사레를 통해 자본주의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는 알튀세르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① (가)는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원리, 즉 하늘의 뜻에 대한 왕충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 견해가 지닌 한계와 의의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② (나)는 사물의 의미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 견해들을 절충한 사상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는 도를 바라보는 노자, 장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을 뿐, 사상가들의 논쟁을 소개하거나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는 세계 형성의 근원을 밝힌 사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나)는 세계 형성의 근원을 밝힌 사상이 제시되었으나, 그 사상이 출현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 5.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가)의 3문단에서 '당시 사람들은 ~ 주장하였다.'라고 하였으므로, 왕충이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 자연 세계의 질서와 인간의 삶이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보았다는 점과 왕충은 당시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왕충이 자연 세계의 질서와 인간의 삶이 분리되었다는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비판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2문단에서 '제작자가 필연적 의미에 따라 세계를 형성한 것이라는 생각이 서양 철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1문단에서 '그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 ~ 소통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3문단에서 '일부 철학자들은 ~ 곧 인류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4문단에서 '세계 형성의 우연성을 주장한 ~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6.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와 ㉣는 도형의 모양이 부바와 키키라는 명칭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상의 이름과 대상의 속성은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장자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① ㉡는 대상의 명칭이 대상의 속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상과 대상의 이름은 자의적인 관계라고 바라본 장자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② ㉣는 95%의 실험 참가자들이 도형의 모양과 명칭을 똑같이 짝지은 ㉡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대상의 속성과 대상의 이름이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장자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의 결과는 대상의 속성이 대상을 지칭하는 소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줄 뿐, 관습적인 언어 사용에 의해 대상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와 ㉡는 실험 참가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대상을 지칭하는 소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줄 뿐, 실험 참가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대상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과는 관련이 없다.

#### 7. [출제의도]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플라톤은 사물에는 그것을 만든 제작자가 부여한 필연적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사는 세계 역시 제작자가 필연적 의미에 따라 형성한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플라톤은 사물에 필연적 의미를 부여하는 제작자 없이 클리나멘이 그냥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루크테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① 루크테리우스는 원자 그 자체의 무게로 인해 원자들이 서로 평행하게 떨어지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자가 낙하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루크테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플라톤의 말로 적절하지 않다. ② 원자들의 존재 의미보다 원자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물보다 사물의 의미가 미리 존재해야 한다는 플라톤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루크테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플라톤의 말로 적절하지 않다. ④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연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은, 루크테리우스의 생각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루크테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플라톤의 말로 적절하지 않다. ⑤ 최초의 마주침이 다른 마주침으로 이어지려면 수많은 원자들이 이 세계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루크테리우스의 생각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루크테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플라톤의 말로 적절하지 않다.

#### 8. [출제의도] 다른 견해와의 비교

'㉠'에서 사건은 우연히 마주쳤는지, 혹은 우연히 마주치지 않았는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다고 했고, 루크테리우스도 세계가 우연하게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에 제시된 사건의 발생에 대한 시각은, 세계의 형성 과정에 대한 루크테리우스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① '㉡'은 어떤 경우에도 사물은 원인이 없이는 생성될 수 없으며, 이는 변하지 않는 사물의 생성 원리라고 바라보는 주장이고, 알튀세르는 인류 역사의 흐름은 정해진 역사 발전의 수순을 따른 것이 아닌 단지 우연의 결과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에 제시된 사물의 생성 원리에 대한 인식은 알튀세르가 제시한 인류 역사의 흐름에 대한 시각과 상충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은 원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생성될 수 없다고 바라보는 주장이고, 노자는 도가 개체들보다 선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에 제시된 원인에 관한 시각은, 노자가 제시한 도가 개체들보다 선재한다는 생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개미가 밟히느냐 밟히지 않느냐는 우연히 발생한다는 주장이고, 왕충도 자연재해가 우연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에 제시된 결과의 차이에 대한 견해는, 왕충이 주장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이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⑤ '㉤'은 인과적인 시각에서 왕이 바르지 않은 정치를 행하면 사변이 발생한다고 바라보고 있으며, 알튀세르는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은 우연의 결과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에 제시된 사변의 발생 원인에 대한 시각은, 알튀세르가 제시한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에 대한 입장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9. [출제의도]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의 '갖추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라는 뜻으로,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

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다.'라는 뜻의 '구성하다'로 바꾸어 쓸 수 없다.

① ㉠의 '지나다'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뜻으로,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니거나 지키다.'라는 뜻의 '견지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여겨지다'는 '마음 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여기다'의 피동형으로,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겨지다.'라는 뜻의 '간주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달리다'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가 무엇에 의존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에 영향이 주어져 지배되다.'라는 뜻의 '좌우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사라지다'는 '현상이나 물체의 자취 따위가 없어지다.'라는 뜻으로, '사라져 없어지게 되다.'라는 뜻의 '소멸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사회 \*\***

□ 출전: 김영규 외, <법학개론>

**10.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7문단에서 '정의', '이성', '형평' 등의 법원리적 규범으로 법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① 1문단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이 유권 해석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의 해석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법관은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법조문에 사용되는 문자는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생략된 내용 추론**

'선의(善意)'와 '악의(惡意)'는 일반적으로 각각 '착한 마음', '나쁜 마음'이라는 뜻이지만, 법률 용어로 쓰일 때는 다른 뜻을 지닌다. 따라서 법률에서 '선의'와 '악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문리적 해석 방법에 해당한다.

① 일반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연인'을 의미하는 '사람'을 법률에서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하여 해석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법률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므로 문리적 해석 방법에 해당한다. ② 입법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누리집'을 활용하여 입법 당시에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는 것은 역사적 해석 방법에 해당한다. ④ 의료인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이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 방법에 해당한다. ⑤ 실험실 공장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교원이나 연구원 등 개인의 창의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실험실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 방법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A국과 B국 두 나라의 형법에는 전기 절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B국이 형법이 제정될 당시 전기 절도 같은 행위를 예측하여 법으로 규정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A국의 법원이 타인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를 처벌하지 못한 것은, 전기는 절도죄의 대상으로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B국의 법원은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에 전기를 포함하면 전기 절도 사건도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전기 절도와 재물 절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절도죄에 대한 법을 전기 절도 사건에 유추 적용한 것이다. ③ B국의 법원은 전기 절도 사건에 대해 법의 명시적 흠결을 유추 적용으로 보충

했다. 유추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법규가 존재해야 하므로, B국의 법원은 절도죄에 대한 법이 있는지 확인했을 것이다. ⑤ A국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기 절도와 관련된 법의 흠결을 최소화하였으므로, B국도 전기 절도와 관련된 법의 흠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3. [출제의도]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은 '생각, 태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는 '앞에 오는 말이 수단이 나 방법이 됨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② ㉠은 '거느리거나 모시거나 두다.', ㉡는 '관계를 맺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은 '생각, 태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품다.', ㉡는 '직업, 자격증 따위를 소유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은 '손이나 몸 따위에 있게 하다.', ㉡는 '모임을 치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은 '자기 것으로 하다.', ㉡는 '앞에 오는 말이 수단이나 방법이 됨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 기술 \*\***

□ 출전: 이종호 외, <레이더기상학>

**14.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

6문단에서 두 종류 이상의 강수 입자가 혼재하면 교차상관계수가 0.97 미만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을 뿐, 강수 입자의 구체적인 종류는 교차상관계수만으로는 알 수 없다.

① 2문단에서 기상 관측 레이더는 대기 중으로 송신된 전파가 강수 입자에 부딪혀 되돌아오면 수신된 전파를 분석하여 여러 변수를 산출한다고 하였으므로,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산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을 통해 이중 편파 레이더가 대기 중으로 전파를 송신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송신된 전파의 강도가 관측 범위 내의 강수 입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③ 3문단에서 우박이나 눈이 녹지 않아 순수한 얼음으로 구성된 경우 빗방울과 달리 입자의 크기가 커도 수평으로 퍼지지 않고 회전 운동을 하면서 낙하한다고 하였으므로, 순수한 얼음인 강수 입자가 낙하하면서 수평으로 퍼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2~6문단에서 언급한 이중 편파 레이더의 산출 변수는 반사도, 차등반사도, 차등위상차, 비차등위상차, 교차상관계수이다. 이 중에서 반사도는 수평 반사도만 의미하므로 수직 편파를 이용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생략된 내용 추론**

2문단에서 우박과 집중 호우의 반사도 값이 비슷하게 나타나 반사도만으로는 어떤 강수 입자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슬비의 반사도는 1dBZ 이하, 집중 호우의 반사도는 20dBZ 이상, 우박의 반사도는 집중 호우와 비슷하다고 하였으므로 반사도로 이슬비와 우박, 이슬비와 집중 호우를 구별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에서 집중 호우의 차등반사도는 2dB 이상으로, 우박이나 눈이 녹지 않은 경우와 이슬비의 차등반사도는 0dB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차등반사도로 집중 호우와 이슬비, 집중 호우와 녹지 않은 눈을 구별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은 강수 입자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므로 강수 입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0dBZ로 산출된다. 하지만 ㉡는 강수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0이 아닌 값으로 산출될 수 있으므로 두 산출 변수가 비례 관계에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과 3문단을 통해 이슬비와 순수한 우박

은 ㉠의 값은 다르지만 ㉡의 값은 모두 0dB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은 ㉡와 마찬가지로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더 길면 양의 값을, 수직으로 더 길면 음의 값을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강수 입자들의 크기와 종류가 모두 동일할 때 ㉠이 양의 값을 갖는다면 ㉡도 양의 값을 갖는다. ④ 5문단에 따라 3~6km 구간에서 ㉠의 값을 구하면 ㉡의 변화량 12°를 전파의 왕복 거리 6km로 나눈 2°/km가 된다. ⑤ 4문단에서 ㉠은 전파의 진행 방향을 따라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강수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0이 아닌 값이 산출될 수 있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은 강수 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0이 아닌 값으로 산출된다고 하였다.

**17.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3문단에서 차등반사도는 수평 반사도에서 수직 반사도를 뺀 값이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반사도 값은 A 지역과 B 지역이 동일하므로, 수직 반사도 값은 차등반사도 값이 더 작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클 것이다.

① ② 비가 내리고 있는 A 지역은 반사도가 20dBZ보다 크고, 차등반사도는 2dB보다 크므로 강수 입자의 모양이 수평으로 긴 집중 호우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A 지역의 교차상관계수는 0.97 미만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A 지역의 강수 입자의 종류는 빗방울로 같되 강수 입자의 크기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③ ④ 기상 현상을 알지 못하는 B 지역은 반사도가 집중 호우와 마찬가지로 20dBZ보다 크고, 차등반사도는 0dB이므로 순수한 얼음으로 구성된 우박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B 지역의 교차상관계수는 0.97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B 지역에는 종류가 같고 크기가 비슷한 강수 입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고전 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조용전>

**18.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황제가 죽자 왕 부인 모자는 망극하다고 했으므로 왕 부인은 아들 조용과 함께 황제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을 뿐, 태자를 산으로 피신시킨 것은 아니다. 황제의 죽음으로 인해 백성들이 산중으로 피란했다는 진술은 있지만 태자와 관련하여 왕 부인이 행한 일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사월 사 일에 황제의 장례를 치를 때 '관원들이 엄히 예의를 갖추어' 황제를 서릉에 안장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황제는 조용에 대해 '인재가 거룩하고 충효가 거룩하며 본보기가 될 만하'다고 언급하며 조용을 태자의 서동으로 삼아 조정에 등용하려 한다. ④ 조용은 대원수가 되어 이두병을 붙잡은 뒤, 태자를 귀양살이 보내고 사약을 내린 것과 자신을 잡으려고 장졸을 보내 시절을 요란케 한 것에 대해 심문하고 있다. ⑤ 이두병은 태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들어 태자의 즉위가 매우 위태로운 일이라고 말하며 태자의 즉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의 황제의 죽음 이후, 비어 있는 제위를 이을 자에 대한 논의가 ㉡에 신하들이 이두병을 황제로 추대하며 마무리된다.

① 황제가 우연히 병을 얻어 병세가 열흘 동안 깊어지지만 이러한 황제의 신상에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무엇인지는 ㉠에 드러나지 않는다. ② ㉠에 신하들은 이두병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 신하들끼리 대립하고 있지는 않다. ③ ㉠에, 이두병의 반대로 조용을 서동으로 등용하지 못하고, 조용 아닌 다른 이의 등용도 윤택하지 않아 서동을 뽑으려던 황제의 뜻은 보류되었다. ㉡에는 서동을 뽑는 일과 관련하여 신하들이 의논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다. ④㉑ 동안 백성들은 황제의 건강을 걱정하며 회복을 기원했지만 결국 황제는 ㉑에 죽게 되어 그들의 소망은 좌절된다.

**20. [출제의도] 대화의 특징 파악**

[A]는 태자의 나이가 어려 제위를 전하기 어렵다는 현재의 상황을 명분으로 들어 이두병과 협정을 하라는 황제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을 상대에게 전하고 있다. [B]는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어 해명하며 상대에게 자신들의 목숨을 보전해 달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① [A]에는 물음의 방식이 드러나지만 원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A]와 [B] 모두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 ④ [A]와 [B] 모두 상대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A]와 [B]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에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지 않다.

**21.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보기>에 따르면 ‘복수’란 악인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므로 조정의 신하들이 이두병과 이관을 붙잡고 조ungs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복수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조ungs의 원한을 대신 해결했다고도 볼 수 없다.

① 승상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황제에게 조ungs을 천거하지 못하도록 다른 신하들을 위협하는 이두병의 모습은 조ungs의 조정 진출을 막아 시련을 가하는 악인의 모습에 해당한다. ② 이두병은 황제의 죽음 이후 어린 태자를 대신해 황제가 되려는 야망을 갖고 역모를 꾀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반란을 도모하는 것에 해당한다. ③ 대원수가 되어 팔십만 대병을 이끌고 황성에 찾아 온 조ungs을 보며 모두 길에 나와 고마워하며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조ungs이 이두병을 벌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는 뜻을 드러내는 모습에 해당한다. ⑤ 이두병을 심문하면서 태자에게 행한 일을 꾸짖으며 그를 벌하려는 조ungs의 행위는 왕권 찬탈을 통해 부당하게 천자 행세를 한 그의 행위를 심판하여 대의명분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획득한 것에 해당한다.

**\*\* 현대 소설 \*\***

□ 출전 : 이문구, <관촌수필>

**22.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용모가 꿩을 들고 가는 성문에게 ‘위디 가지구가’냐고 묻는 말에 조순만은 아버지가 ‘담뱃값 허게 팔어 오라’고 했다는 성문의 말을 용모에게 전하고 있다.

② 용모는 ‘나이타에 지름이나’ 넣으려고 장에 가는 길에 성문을 만나 꿩을 팔러 가는 이유를 들은 후 성문을 돕고자 마음먹은 것이다. ③ 용모가 성문을 나무라는 투로 한 말에 오수길은 ‘학생이가 여적지 못 일어났나 봐’, ‘누운 지두 달포’ 가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향성이 병에 걸린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고향성이 아들에게 ‘담뱃값 허게’ 꿩을 팔아오라고 시켰다는 말을 통해 아들을 장에 보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약을 사 오도록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조순만이 ‘얼마나 나가’냐고 꿩값에 대해 묻자 오수길은 ‘누가 팔어 봤으야지’라며 가격을 모른다고 말한다. 즉, 조순만도 꿩의 가격을 모른다.

**2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

용모는 성문을 도와주려다가 ‘꿩’을 잡았다는 오해로 인해 재판과 벌금형을 받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① 용모는 꿩으로 인해 재판을 받으면서 꿩과 같은 해조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농민으로서의 지난 삶을 반성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용모가 꿩을 넘겨 받은 것은 어린 성문을 돕기 위한 배려이다. ③ 용모가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으며 마을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⑤ 용모가 장에서 꿩을 흥정하려는 모습은 나오지만, 흥정 상대를 찾는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

**2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

[C]의 ‘판사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판사의 위엄이 서린 듯한 말투에 대해 서술자가 서술한 것이고, ‘용모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판사의 말에 입을 못 여는 용모의 모습을 서술자가 서술한 것이다. 즉 서술자가 직접 두 인물의 모습을 서술한 것이므로 다양한 인물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다.

① [A]에서 ‘고개를 꾸뻑’ 하는 아이를 ‘여겨’ 본 용모에 의해 그 아이가 ‘고학성이 아들 성문’임이 밝혀지고 있다. 즉 용모의 시각에서 다른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B]에서 용모가 ‘성문이 손에서 꿩을 넘겨 받아 든’ 행동에 대해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쥐게 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서술자가 용모의 의도를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D]에서 ‘용모’가 ‘원기 있게 말’하는 모습에 대해 서술자는 ‘술기운 덕도 아닌 것 같고’, ‘기지개와 같은 몸짓으로 믿어야 될 성싶’다고 그 발화에 담긴 의미를 추측하여 서술하고 있다. ⑤ [E]에서 ‘나는 용모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므로 작품 속 서술자가 인물을 관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과 관련한 ‘어디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라고 서술자가 떠오른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25.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판사가 자연 보호가 당면 과제임을 부드러운 어조로 말한 것은 울무에 잡힌 꿩을 팔려고 한 용모의 행동을 조수 보호 정책에 근거하여 나무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수 보호 정책을 갖는 문제점을 근거로 야생 동물의 자율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사의 내용을 통해 판사의 발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① 용모가 울무에 잡힌 꿩을 파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고 여긴 것은 조수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용모가 야생 동물인 꿩이 농산물을 해치는 해조인데 보호할 가치가 있냐고 반문한 이유를 늘어난 야생 동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던 당시의 상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④ 야생 동물이 법의 보호를 받든 자신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고 반발한 용모의 심리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강제적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다는 당시 상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갈래 복합 \*\***

□ 출전 : (가) 신고, <귀산음>  
(나) 박인로, <노계가>  
(다) 법정, <겨꾸로 보기>

**26.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가)와 (나)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는 글쓴이가 우연히 산의 모습을 거꾸로 보게 된 경험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 (나), (다) 모두 과거의 삶을 후회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③ (가), (나), (다) 모두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가), (나), (다) 모두 옛 성현의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⑤ (가), (나), (다) 모두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27.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제7수>에서 화자는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밧기’를 달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표현으로, 상대와의 동질감을 표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① <제1수>에서는 ‘인사는 달라졌구나’와 ‘못내 슬허 하노라’라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세간의 존멸’에 대한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제4수>에서는 ‘산화는 물의 피고 물세는 산의 운다’에서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자연 속에 있는 화자의 시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③ <제5수>에서는 ‘갈매기’를 신의가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며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제7수>에서는 <제5수>의 ‘거문고’를 다시 언급하며 <제5수>의 거문고를 비스듬히 들고 산수를 회롱하던 것에서, <제7수>의 거문고에 대한 흥이 다해 낚시터로 내려가는 것으로 화자의 행위가 변화했음을 드러낸다.

**28. [출제의도] 시상 전개 방식 파악**

[A]에서 화자는 ‘봄웃’을 입고 자신이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자연으로 가고 있고, [B]에서도 화자는 ‘베웃’을 입고 ‘낚시터’라는 자연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A]의 ‘봄웃’과 [C]의 ‘베웃’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대조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A]의 ‘평생 품은 뜻’은 [B]의 ‘아무런 욕심 없이 탈속의 마음’으로 ‘산수에 깃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B]의 ‘산수에 깃들인 채’ 사는 삶의 양상이 [C]의 ‘낚시대를 켜 채’ ‘취두건 베웃’을 입고 ‘낚시터’로 내려가는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④ [B]의 ‘욕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D]에서 ‘낚시 놓고 배회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D]의 ‘고기 수’를 쉼 정도라는 표현에서 물의 맑은 이미지가 나타나 있고, [E]에서도 ‘누대’의 경치가 ‘깨끗하’여 ‘물’과 ‘하늘’이 ‘한 빛이 되’었다는 표현에서 맑은 자연의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나)의 ‘백수’는 흰머리를 뜻하는 말로, 화자가 나이가 들어서야 자연을 찾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가)의 ‘십 년’은 화자가 속세에서 벼슬을 하던 시기로 볼 수 있을 뿐, 화자가 자연을 찾아오기 위해 노력한 세월로 볼 수 없다.

① (가)의 화자는 벼슬을 마치고 돌아온 ‘고향’에서 ‘산천’이 ‘의구하’다고 말하며 자연이 변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고향의 자연은 화자에게 익숙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나)의 화자는 자신이 찾아간 자연을 ‘임자 없이 버려져 있’던 공간이자 ‘천지가 감춰’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임자가 없었다는 점, 감춰져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공간은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했던 곳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의 ‘어즈러운 기별’은 ‘세상’의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화자는 이를 ‘몰라 하노라’라고 말하며 이와 단절하고자 한다. 또한 (나)의 화자는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중요한 대상이 아닌 ‘뜯구름’으로 인식하며 단절하고자 한다. ⑤ (가)에서 화자는 ‘산수간’에 누워 한가로이 자연을 즐기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누대의 맑은 경치’를 바라보며 자연을 즐기고 있다. 이를 통해 (가)와 (나)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시구, 구절의 의미 파악**

㉠에서 화자는 낚시대를 놓고 물결을 굽어보는데, 물에는 하늘의 모습이 비쳐 구름 그림자와 하늘빛이 물속에 잠겨 있고 이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구름 위에서 뛰노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의 화자는 물에 비친 하늘의 모습을 보고 반응했다고 할 수 있다. ㉡에서 글쓴이는 마루에서 모로 돌아눕다가 산의 모습을 다르게 보게 된다. 따라



서 ⑥의 글쓴이는 산의 모습이 평소 보던 것과 달리 보인 것에 대해 반응했다고 할 수 있다.

② ⑥는 달리 보인 산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하며 산의 모습을 본 것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②는 하늘의 모습을 물에서 본 것이므로 하늘과 물의 변함없는 모습을 본 것에 대한 반응이라 볼 수 없다. ③ ②는 하늘이 물의 모습을 닮아 변해 가는 것과 관련이 없으며, ⑥ 또한 산이 주변의 모습을 닮아 변해 가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④ ②는 물에서 하늘의 모습을 보는 것이므로 그들이 분리되어 보인다고 할 수 없으며, ⑥는 산이 선명하게 보인 것일 뿐 산과 주변이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⑤ ②는 물에서 하늘의 모습을 보는 것이므로 하늘과 물이 뒤바뀐 것은 아니며, ⑥는 산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다르게 본 것이므로 과거와 달라진 현재 산의 모습을 보았다고 할 수 없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팔베개를 하고 누워'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는 것은 글쓴이가 빨래를 한 후 쉬기 위해 한 행동이다. 글쓴이가 산의 모습을 새롭게 본 것, 즉 새로운 것을 경험한 것은 '모로 돌아누워' 보았을 때의 일이다.

② '사람'과 '사물'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은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으므로 미지의 것을 경험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③ '아무개 하'는 것은 대상을 '굳어 버린' 존재로 보게 하므로 기존의 지식으로 해석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아름다운 비밀'은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에 해당하므로 대상을 진심으로 이해할 때 '찾아낼 수' 있다. ⑤ '시들한 관계'를 '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 현대시 \*\*

□ 출전: (가) 김광규,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나) 김혜순, <별을 굶다>

3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가)는 '~면 ~다', '~을 ~다고 ~리 수 있는 나'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나)는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생명력을 지닌 나무와 현대인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① (나)는 '번쩍'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두 눈을 뜨는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가)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가)에는 겨울과 봄이라는 계절의 모습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꽃을 피우고 있는 나무의 상황이 드러나지만 (나)에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 (나)는 모두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⑤ (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33. [출제의도]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는 것은 현대인이 각자의 일생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내고 있음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②는 나무가 땅에 깊숙이 뿌리 내리는 것처럼 젊은이들도 내면의 힘을 키워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⑥의 나뭇가지 끝은 젊은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는 시어일 뿐, 극단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시어가 아니다. ③ ③는 현대인들이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④는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현대인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그들의 내면에 숨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가)의 '보이지 않는'과 (나)의 '볼 수 없는'은

나무가 꽃을 피워 내고 현대인이 현실을 이겨 내게 하는 힘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① (가)의 '노란 얼굴'은 동짓달에 꽃을 피운 개나리의 모습을, (나)의 '무표정한 저 얼굴'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③ (가)의 '하늘'은 나무가 꿈을 피워내며 향해가는 곳을, (나)의 '땅속'은 현대인이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다. ④ (가)의 '밝고 넓게 퍼져 나가기'는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꿈을 피워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의 '일으켜 세우는'은 일상에 지쳐가던 현대인이 다시 삶의 의지를 불려일으키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⑤ (가)의 '뿌리'는 나무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게 해 주는 힘의 근원이고, (나)의 '불가마'는 현대인이 각자의 내면에 품고 있어 그들이 반복되는 일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힘의 근원이다.